

## 오카 가문 주택

오카 가문 주택은 에도 시대(1603~1837)에 이와미 은광에서 에도(현재의 도쿄) 막부를 대표했던 오모리 다이칸(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의 관리) 아래의 중간급 관리가 살았던 무사 가문 저택으로 현재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살았던 사와이 가문과 시카노 가문의 당주는 이와미 은광에서 채굴되고 제련된 은이 에도에 있는 막부의 창고로 출하되기 전까지 보관하는 감독직을 대대로 역임했습니다. 이 주택은 오모리의 큰 길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다이칸쇼(다이칸이 집무하는 관청)와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으로 주택의 넓이 역시 충분합니다. 1974년 사적으로 지정되었을 당시 소유자의 이름을 따 ‘오카 가문 주택’으로 불리는 이 저택은 앞뜰과 두 개의 현관(커다란 현관은 중요한 손님들이 방문할 때만 열림)이 있는 안채, 그리고 목욕 시설이 갖춰진 자그마한 단층 건물과 내화성을 갖춘 토광, 자그마한 임시 가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카 가문 주택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